

홀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2016.08.16. |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 smj@saesayon.org

필자가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과정을 거치며 마주했던 삶의 문제들이 현재 청년의 취업문제, 거주문제, 생활문제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떤 문화시설이 런칭할 때 온라인 기사에 누리꾼이 ‘지방은 오늘도 읍니다’ 와 같은 댓글을 남기곤 하는데, 이는 문화생활 뿐 아니라 교육, 취업 등 ‘기회’ 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청년들은 집보다도 앞서 말한 ‘기회’ 에 더 반응한다. 기회를 잡는 결과가 결국 거주를 포함한 장기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무척 잘 알기 때문이다.

부모의 노력 : 서울 정착, 꼬박 10년

K는 지방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와서 남은 학창시절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다. 지방에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온 집은 전학 온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큰방 1개에 주방 겸 거실이 작게 딸려있는 반 2층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였다. 특이하게도 전기세나 수도세를 옆집과 공유해야 해서 사는 내내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운 집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나자 전세비 인상과 월세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둘 다 여의치 않아 이사를 가야했다. 이런 식으로 1년 혹은 2년마다 높아지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하며 이사를 다녔다.

표 1.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 가격 월별 동향 (전월비, 단위 : %)

		15년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매매	0.49	0.20	0.08	0.08	0.01	0.03	0.07	0.09
	전세	0.58	0.31	0.21	0.21	0.17	0.13	0.13	0.10
서울	매매	0.68	0.32	0.11	0.15	0.07	0.12	0.28	0.40
	전세	0.85	0.49	0.36	0.33	0.28	0.23	0.25	0.27
5개 광역시	매매	0.60	0.23	0.09	0.06	-0.02	-0.01	-0.04	-0.01
	전세	0.47	0.22	0.15	9.15	0.08	0.06	0.02	0.01

자료 : kb 주택가격동향, 2016년 6월

참고 : 5개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다행히 이사를 갈 때마다 사정은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서울에 온지 10년 만에 K의 가족은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를 사서 겨우 정착 할 수 있었다. K의 부모님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곧 안정적인 서울생활과 직결된다고 여기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낡은 아파트였어도 그것은 10년간 묵묵히 벌여온 조용한 전쟁에서 얻은 승리वाद 같았다.

청년의 노력 : 금융위기와 스펙, 불안정일자리

이 후 K는 경상계열을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지만 재학 중에 터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청년 취업시장을 마주하게 되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여타 스펙을 높이기 위해 휴학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K도 한 해 휴학을 하며 동기들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학점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위해 공을 들였다.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취업시장 문은 더욱 좁아져 있었고, 비정규직 일자리로 넘쳐나고 있었다. 수십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공공기관의 6개월 인턴에 채용 되었다. K는 이러한 일자리 경험을 추가하고 나면 조금이나마 안정된 일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에 첫 발을 디뎠다.

K는 사실 시간이 들더라도 정규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처음 비정규직은 끝까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들은 탓이었다. 하지만 K는 더 이상 취업준비생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바로 10년 만에 얻은 서울의 아파트가 재개발 되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때문이었다. 대출금이 주는 부담은 생각보다 무거워서 K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남아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어서 취업이 되어 가계의 어려움을 더는 것에 한 몫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재개발 : 기회? 함정?

기존에 자가 주택이 없는 임금근로자가 서울 시내에 새로 지은 30평대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기존의 집이 재개발이 되더라도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집 담보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가구 비율이 많았다. K의 가족도 그러한 가구 중 하나였다. ‘내 집’을 마련했다는 작은 보람과 함께 찾아온 큰 금전적 부담은 K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고 앞서 말했듯이 K가 비정규직이어도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간 6개월의 공공기관 인턴은 금세 지나가 계약 종료로 되었고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으로 연결되는 기회는 K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덧붙여 K의 부모님 중 한분이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까지 겹쳐 K를 둘러싼 상황은 악화일로로 걸었다. 가족들은 10년 넘게 전쟁처럼 지켜온 서울생활에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하고 가족회의를 열었다. 결국 K의 가족은 서울의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기로 한다. 가구 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1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바로 다음 달부터 대출금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할 것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작전상 후퇴 : 정착하는데 10년, 떠나는데 반 년

부채를 청산하고 다음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가족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K도 학업과 직장의 계약기간 모두 끝났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기로 했다. 집안의 사정이 재정비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 믿기도 했고, 지속적인 학업과 취업압박으로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작전상 후퇴’ 라고 생각하며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집을 알아보았다.

이사하는 데 있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 번째, 대출금을 청산하는 것. 두 번째, 서울까지 1시간~2시간 안에 도착하는 지역일 것. 세 번째, 최소한의 도시 인프라가 형성된 곳. 네 번째, 자연친화적인 분위기. 다섯 번째, 전세. 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곳은 찾을 수 없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원하는 조건 대부분을 만족시키면 금액이 비싸거나, 월세이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대중교통의 혜택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다.

표 2. 주요지역 평균매매 및 평균전세가격 (단위 : 만 원)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광역시	기타
매매	종합	29,739	50,198	21,521	30,790	37,322	23,465	18,229
	아파트	30,739	56,292	25,088	31,313	38,936	25,089	18,615
전세	종합	20,228	32,999	15,077	22,164	25,549	15,857	12,115
	아파트	22,963	40,945	18,788	24,388	29,254	18,506	13,782

자료 : kb 주택가격동향, 2016년 6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KTX가 정착하는 천안아산역에서 20분, 1호선 종점인 신창역과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알게 되었다. 적절한 시기에 예산으로 잡았던 금액 이하로 전세 입주 가능한 집이 있다는 사실만 듣고 반신반의하며 방문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평수와 거실 창을 통해 아담하지만 수목이 뺨뺨한 산을 마주하고 있는 경관이 온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처에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용이한 편이었고 작은 마트 등과 동네 병원 및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 KTX나 지하철 외에도 일반 기차와 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서울까지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K의 가족은 요건 다섯 가지를 거의 만족한 이곳에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다.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자 아등바등 했던 서울 생활을 접는 것이 시원섭섭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1호선이 오가는 곳이라며 이러다 전라도나 강원도, 혹은 경상도까지 1호선 타고 가는 날이 오지 않겠냐며 끝 맛이 씹쓸한 농담을 하곤 했다. 또한 지방이어도 서울과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의



이사였다. 여차하면 다시 서울로 올 수 있도록 전세로 집을 얻었고, 서울의 생활양식을 아주 버리지 못한 반쪽짜리 지방행이었다. 누군가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향·귀농했지만, K의 가족은 ‘작전상 후퇴’ 라는 말이 더욱 잘 어울렸다. 그해 겨울 유래 없이 폭설이 쏟아지던 날,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지 반년 만에 K의 가족은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완료했다. 막상 도착하니 당장 다음 달부터 금전적으로 숨통이 트인다는 것 하나로도 ‘휴가분한 후퇴’ 로 이사의 격이 올라갔다. K도 그 영향을 받아 취업과 진로에 대해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새롭게 파이팅을 외쳤다.

휴가분한 후퇴 : 경쟁으로부터 멀어진 삶

K는 이사 후에 거실 창을 통해 고라니를 직접 보고, 삐꾸기 소리를 직접 들었다. 밤에는 K가 아는 별자리 이름을 하늘에서 모두 찾고도 더 많은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밤에 가로등과 같은 인공조명이 거의 없고, 새소리나 벌레소리 말고는 소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껏 취해본 적 없는 숙면을 취하는 자연친화적인 삶에 점차 익숙해졌다. 어느 정도 불편함과 지루함은 있었지만, 여유에 익숙해지자 몸과 마음이 편해졌다. 깨끗한 환경과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은 고질적으로 비염과 알레르기를 앓던 K의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주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수와 휴양림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주말 일정이 건강하게 채워졌다. 매일 휴가를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서울 생활 적응기는 K의 부모뿐 아니라 K에게도 길고 치열한 시간이었다. K네 가족은 많은 기회를 접하고, 최신 정보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했었다. 이러한 생활양식이 가능한 곳은 단연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들을 스스로 합리화 하였다. 그 결과 청년 K는 온갖 노력과 스펙으로 무장하였는데도 구직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맥없이 쓰러졌다. K와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전세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의 지원으로 높아진 학력과 경제수준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진 상태에서 오히려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기만 했기에 청년들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다.

K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와중에 지방으로의 회귀는 삶의 방향을 환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K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고 경쟁의 방향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었다. K는 이사 온 이 지역에서 취업을 통해 자리를 잡는 것이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아산에서의 구직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계 : 취업은 여전히 남의 떡

아산시는 전국에서 취업률이 높기로 소문 난 곳이다. 그 이유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아산시에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이 2천 개 이상 있기 때문이다. K는 인구 대비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경쟁도 비교적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월등히 높은 제조업 비중인 산업구조 안에서 기술직의 일자리가 많은 것이지 사무직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서비스업도 전국 및 서울 대비 일자리가 적은 편이어서 관련 기술이 없는 K에게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었다.

표 3. 아산시, 서울시 및 전국 산업별 고용현황 (단위 : %)

산 업	전국	서울	아산
농업, 임업 및 어업	7.52	0.04	8.13
광업	0.06	0.02	0.06
제조업	17.47	8.15	42.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33	0.20	0.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보건의업	0.34	0.09	0.44
건설업	7.03	6.52	4.60
도매 및 소매업	13.97	18.43	6.11
운수업	5.10	4.66	3.79
숙박 및 음식점업	7.89	8.38	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82	7.21	1.46
금융 및 보험업	3.10	5.52	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0	2.79	1.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8	9.00	2.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26	5.55	5.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0	3.11	2.01
교육 서비스업	7.09	7.17	5.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71	6.04	4.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	1.89	0.64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0	4.99	2.72
기타	0.29	0.23	0.18
합 계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5년 1/2 원자료

상경계열 대졸자인 K보다 마이스터고와 같이 기술 숙련 특목고의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았다. K는 몇몇 기업의 정규직 및 공공기관에 지원해 보았지만 탈락하였고, 대학교의 1년 계약 사무직에 합격하였다. 일단 들어가면 정규직 전

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근하였지만, K를 기다리는 것은 10년 동안 계약직만 했다더라, 무기 계약직 외에는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더라 하는 우울한 미래 뿐 이었다. K는 지방의 취업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들어가고 만 것이다.

표 4. 아산지역 성별 · 학력별 취업자 현황

학력	남		여		합계(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중졸이하	11,916	12.22	14,549	25.15	26,465	17.03
고졸	43,285	44.37	21,182	36.62	64,467	41.48
초대졸	15,738	16.13	7,809	13.50	23,547	15.15
대졸이상	26,613	27.28	14,310	24.74	40,923	26.33
합 계	97,552	100	57,848	100	155,400	1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5년 상반기(1/2) 원자료 분석

K의 선택 : 지방과 서울, 둘 다

K는 계약직 교직원을 그만두고 구직 끝에 1년 전에 서울 소재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 되었다. KTX를 통해 아산에서 서울로 1년 동안 편도 100분정도의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다.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은 K에게 장거리 출퇴근이 괜찮은지 걱정하지만 오히려 K는 웃으며 지방 살이의 장점을 줄줄이 말하곤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적응되기 전에는 힘든 출퇴근에 서울에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까, 아산에서 다시 구직을 해볼까 고민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광역 출퇴근을 선택하게 되었다.


먼저 출퇴근비용과 서울에서의 거주 비용을 비교해 보았다. 천안아산역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KTX의 월 정기권은 30만원 미만이다. 이외 이동비용을 포함하면 40만 원 정도의 출퇴근 비용이 든다. 반면 서울 거주비의 평균적인 시세를 보면 2평 남짓한 고시원이 월 30~50만 원, 5평 이상의 옥탑방 전세가 3천만 원 ~ 5천만 원 이고, 회사 근처 8평짜리 원룸은 1000만원 보증금에 월 40~6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이 외에 서울 시내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데, 들어가기 어렵고 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간다.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출퇴근이 유리했지만 서울에 살 때에도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출근할 때 만원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1시간~1시간 30분 거리를 통학(근) 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나니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었고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실태이다.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범람하는 노동시장에 중에서 지방의 노동시장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K의 구직과정을 통해 체험했다. 특히 지방에 사는 청년들 중 이공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인문계열을 전공자들에게 훨씬 큰 문제인 것을 느꼈다. K가 거주하는 아산지역은 전국에서도 고용지표가 건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실상은 다양한 좋은 일자리가 아닌 하나의 산업에 몰린 모습이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제조업과 같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산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이조차도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인구의 유출로 고민을 하는 모습이 종종 언급되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장기적인 기획으로 양적 증대가 아닌 좋은 일자리의 유치에 힘을 써야 한다. 결국 K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반쪽짜리 서울생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꾸려나갔지 않은가.

청년의 선택 :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

K의 사례는 필자의 경험이 절반 정도 반영된 사실 기반의 이야기이다. 필자가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과정을 거치며 마주했던 삶의 문제들이 현재 청년의 취업문제, 거주문제, 생활문제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떤 문화시설이 런칭할 때 온라인 기사에 누리꾼이 ‘지방은 오늘도 읍니다’ 와 같은 댓글을 남기곤 하는데, 이는 문화생활 뿐 아니라 교육, 취업 등 ‘기회’ 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청년들은 집보다도 앞서 말한 ‘기회’ 에 더 반응한다. 기회를 잡는 결과가 결국 거주를 포함한 장기적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무척 잘 알기 때문이다.

청년의 일자리 및 의욕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뚜렷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취업 가능 여부와 같은 단순한 유형의 질문으로는 청년들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청년들은 어떤 기회를 원하고 찾고 있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그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다양한 대안으로 청년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고, 가까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원하는 상은 어떤 것인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과 인식변화에 반영해야 한다. 청년들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틀 안에 갇혀있기 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문제에 답을 내고 움직일 수 있어야 오래 앓아온 청년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8월 1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휴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